

민주-신당 통합협상 '급물살'

민주당과 통합신당이 통합 정당의 근간이 되는 기본 정책협의서 발표에 사실상 합의하는 등 양측간의 통합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22일 발표될 예정인 기본 정책협의서는 추후 통합 과정에 합류할 인사들의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상천 민주당 대표와 김한길 통합신당 대표 등 양당 지도부는 21일 국회에서 통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통합협당의 이념과 정책노선을 담은 기본 정책 협의서를 오는 22일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통합 정당의 근간이 되는 기본 정책협의서는 추후 통합 과정에서 합류할 인사들의 자격을 가늠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어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양측이 지난달 협상에서 기본 정책협의서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된 상태여서 지구 수정 등의 절차만 거치면 별다른 문제 없이 이르면 22일께 기본협의서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한, "양측이 합의한 기본 정책협의서는 추후 합류할 정치권 인사들의 성향을 가늠하는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다"며 "잡탕식 정당이나 도로 우리당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책협의서에 부합하는 인물들이 통합 정당에 합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이 협상 재개와 동시에 기본 정책협의서 발표에 나서며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이날 말쯤 통합 협상이 출범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양행일 통합신당 대변인은 "창당 절차 등을 감안하더라도 통합 정당의 출범은 이르면 이날 말쯤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도 "늦어도 6월 초순에는 통합 정당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정당 이념·노선 담은 합의서 오늘 발표 사실상 합류 인사 '가이드 라인'... 논란일 듯



중도개혁통합신당 김한길 대표와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논의를 위한 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과 통합신당이 이처럼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실상 대통합을 주문하는 듯한 발언을 잇달아 내놓는 등 양측의 소통할 움직임을 대한 정치권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의 통합 논의의 마지막 선인 오는 6월 14일을 이전에 통합 정당을 출범시켜야 여당의 원들의 탈당을 촉진하면서 통합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즉, 더 이상 통합 협상을 미루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추후 통합 논의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데 양측 간의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통합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의 통합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우선 대표 등 지도층에 대한 양측간의 합의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데다 추후 합류할 세력들에 대한 이견 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종부세 인하 공약은 1%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강력 비판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1가구 1주택 보유자 세 부담 완화' 공약에 대해 '1%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MBN 특별 대담에서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전 서울시장의 공약에 대해 "1가구 1주택 가지고 있으면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1만5천명 정도 되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1%도 안 된다"며 "양도세 때문에 '집을 못 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금이라고는 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의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만일에 이런 상황을 알고도 어떤 대통령 후보가 '양도소득세 깎아 준다, 종부세 깎아 준다'고 공약한다면 그 사람은 '1% 대통령'이고, 많아야 '4%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6억 이상 주택을 가져 종부세에 걸리는 사람들이 모두 합쳐 4%이니까 '4% 대통령' 하겠다는 것"이라며 "4%라도 축여가는 4%가 아니고, 국민 중에서 가장 넉넉한 그 4%를 위해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공약하는 대통령이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이 전 서울시장의 지난 18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의 예외규정을 두거나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또 박근혜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의 7% 경제 성장률 공약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렸다.

박 전 대표는 "집권할 경우 재임기간 평균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이 전 시장도 "대통령이 리더십만 제대로 발휘해도 한해 경제성장률을 1~2% 포인트는 올릴 수 있다. 최소한 7% 성장엔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우선 "성장률 공약을 하면 자연히 목표를 높게 잡게 되어 있고, 그 공약에 매달리다 보면 무리한 경제정책을 쓰게 되고, 그것은 정부 후방이 아니면 그 다음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넘기게 되는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선 관리지침 시달

전남도선관위는 21일 회의실에서 전남 도내 22개 시·군선관위 사무국·과장회의를 열어 효율적인 선거관리체제 구축과 정책선거 실현 분위기 조성 등 '17대 대통령선거 종합관리지침'을 시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골든로즈호 대응 정부 총체적 부실

통의통위, 中 저자세 비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제주 선적 화물선 골든로즈호 침몰사고에 대한 중국 측의 낙장 통보와 우리 정부의 더딘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통의통위 위원들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권동욱 해양경찰청장상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중국 내 정보수집 단계에서부터 해양경찰청의 상황 전파 지연, 정부 부처 간 협조 미흡, 실종 선원 수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부실했다고 한 목소리로 성토하면서 외교부와 해양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사고발생 해역이 공해상인데도 정부가 지나치게 중국 측의 눈치를 보느냐고 수색작업에 소홀히 했으며 대중 저자세 외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중국 측 책임을 분명하게 따질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특히 국제법상 공해상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우리 정부는 대중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며 해결 함정을 사고해역에 통과하지 않아 자국민 보호에 피동적으로 임했다"고 비판했다.

송민순 외교부장관은 답변에서 "사고에 관여된 중국 측 진상조사(의무와 책임)를 게을리 한 부분이 있다"면서 "진상조사에 대한 중국 측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범여, 盧·DJ 발언 아전인수식 공방

우리당 "대통합 요구... 소통합은 오판"

민주당 "막말하는 건 구태정치 의 표본"

지난 19일 범여권 대통합을 주문하는 듯한 발언을 잇달아 내놓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범여권과 민주당의 '아전인수' 식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 전·현직 대통령이 추후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보이느냐

에 따라 민주세력 대통합의 방향과 흐름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1일 열린우리당은 두 전·현직 대통령의 발언의 배경은 사실상 대통합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날 재개된 민주당과 통합신당의 소통합 협상은 "총선을 노린 하책(下策)"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정세균 의장은 "소통합은 총선에

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오판"이라며 "대통합의 큰 흐름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통합신당의 기세를 확실히 꺾어놓는 것은 물론 탈당 등 내부 붕괴를 막아 추후 통합과정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당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가 됐다"며 사실상 열린우리당과의 대통합 지지 입장을 밝혀 미묘한 과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장상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통합과 창조 포럼'도 대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박상천 체제의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통합신당은 공동전선을 펴며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스타일이다"라고 역공했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통합신당 측과 협상을 재개하는 자리에서 "막말하고 압박을 가하는 건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열린우리당의 공세를 평가절하했다.

김한길 통합신당 대표도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민주당과의 통합협상에 나섰다 거부할 당하지 이제 신당과 민주당의 협상이 재개되는 데 대해 막말하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효석, 박상천 '소통합론' 반박

과거 아닌 미래위한 통합 등 '3원칙' 제시

김효석 민주당 의원(장성·담양·곡성)이 범여권과 민주당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 박상천 민주당 대표의 '특정세력 배제론'을 정면 반박하는 '통합의 3원칙'을 제기,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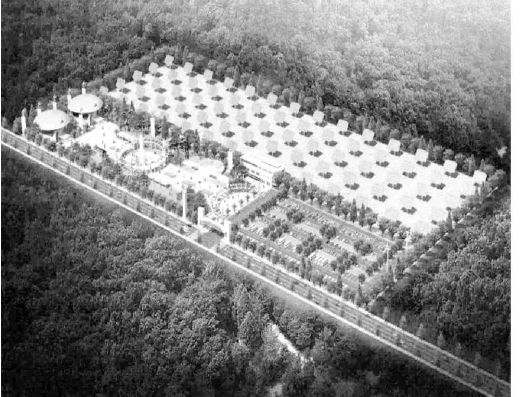
김효석 의원은 21일 광주지역 국회 출입 기자들과 만나 '통합의 3원칙'으로 우선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통합'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주도 세력은 국정 실패에 대한 견여한 반성과 함께 백의중군의 자제를 보여야 하고 민주당도 과거의 구원이나 기독교에 연연하기보다는 열린 자세로 대통합을 통한 미래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으로 김 의원은 '민심을 중심으로 한 통합의 길'을 주장했다. 통합이라는 바다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합의 바다를 지향하는 모든 강줄기'가 한데 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민주세력이 확보하고 있는 민심을 민주세력 대통합이라는 '대의(大義)'로 결집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민주세력의 대통합은 좌우 이념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좌우를 넘나드는 실용주의 정책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제3의 길'을 제시했다. /임동욱기자 tuim@

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민심을 중심으로 한 통합의 길'을 주장했다. 통합이라는 바다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합의 바다를 지향하는 모든 강줄기'가 한데 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민주세력이 확보하고 있는 민심을 민주세력 대통합이라는 '대의(大義)'로 결집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민주세력의 대통합은 좌우 이념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좌우를 넘나드는 실용주의 정책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제3의 길'을 제시했다. /임동욱기자 tuim@

태양광 발전 사업의 선두기업

태양광발전사업 토달 컨설팅
-태양광 발전 사업 신청 및 허가대행
-책임시공사 선정
-자금컨설팅
-태양광발전 사업비 펀드조성 컨설팅
-태양광 발전 시공 전문기업



- 사원모집
- 경영컨설턴트
 - 경영지도사자격증소지자
 - 금융증권무경력자
 - 전기기사
 - 전기기사자격증소지자
 - 제출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 사본
 - 전형방법
 - e-mail : hbdsolea@naver.com
 - 서류심사후 개별통지

※태양광발전 부지 매입 및 임대상담 환영

한반도 솔라텍(주) www.hbdsolea.com T.(062)524-0321,8550, 8558 F.062-525-5689

●화순 북면 3MW 태양광발전 테마파크 1차 1MW 5월 착공●

BUCK SH SYSTEM ORDER MADE 전국대리점 정찰가격입니다

BUCKISH 유동점

꾸미고 이제는, 맞춰입는 기쁨으로!

전통 영국신사의 멋과 합리주의 정신 빅쉬(BUCKISH)의 품격을 만나 보십시오

기성복보다 저렴하고 맞춤복보다 기품있는 영국식 합리주의 맞춤정장, 빅쉬 빅쉬만의 자랑 비접착 맞춤정장 기성복을 사자니 딱 맞는 사이즈가 있고 맞춤정장을 고집하지니 가격이 부담스러웠다면 이제 영국식 합리주의 맞춤정장, 빅쉬를 만나보십시오.

양동파울소 아세아극장
← 동교로 → 빅쉬가게 → 빅쉬유동점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57-32 ■전 화 : 062-514-1741
■팩 스 : 062-514-1745 ■휴대폰 : 011-9603-1741

지리산한약방 (국내산한약재료사용)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자세한 자료는 www.jir.wo.to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의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아세아극장 광주은행
← 동교로 → 북부지점 → 양동시장 지리산한약방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갈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은 시온구 연결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찜질효과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광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갈레오 필름난방은 당일 시공하여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안전이세요. 티저를 열선대신 탄소면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파 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062)262-0101